업계소식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열려

13개 종목 입상자 76명 시상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7월 1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5월 19일 열린 제 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76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것은 건설기능인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건설산업을 이끄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배관, 전기용접 등 13개 직종에서 1~3위에 오른 입상자 전원에게는 해당직종의 기능사 자격과 함께 상금, 대회장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됐으며 국내외 산업연수기회도 주어지며, 또한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직종별로는 건축배관 김기문(영진기계설비), 전기용접 정현봉(유진공영)을 비롯한 13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도장부문의 이태희씨(만 64세)는 최고령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작품을 완성, 후배건설인에게 귀감이 된 점이 높이 평가돼 3위 입상자 수준의 특별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8명이 참가 했는데 거푸집 부문에서 위 후이씨가 2위에 올랐다.

또 여성은 13명이 참가해 실내건축 고민성씨와 전산응용토목제도 김종아씨가 부문별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업계소식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입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건축배관과 전기용접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건축배관

입상순위	성 명	소속회사	시 · 도회
1	김기문	영진기계설비(주)	광주 전남
2	김덕봉	(주)성덕이엔씨	경기
3	김기철	준제이엔씨(주)	서울
3	박병식	(주)유일기업	충북

전기용접

입상순위	성 명	소속회사	시 · 도회
1	정현봉	(주)유진공영	부산
3	김성철	준제이엔씨(주)	서울
3	김학진	(주)금화PSC	서울
3	양한주	(주)명도정공	서울

영광의 얼굴들 - 수상자 인터뷰

김기문 영진기계설비(주) [건축배관 1위]

"선배 기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기술을 전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김기문씨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난 27년간 공사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김기문씨는 "자신이 배운 기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시공할 것"을 조언한다. 또한 시공 후에는 반드시 책임질 각오로 시공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기능이 곧 자존심' 이라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

업계소식

지난날 좀더 열심히 기술습득에 열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기술을 익혀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다는 김기문씨.

김기문씨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미관'도 중요시 한다. 자신이 시공한 것이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땀을 쏟는 것이다.

김기문씨는 향후 기계설비분야의 '우수산업 기술인'을 목표로 기술습득에 정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배 기능인들을 지도하여 보다 우수한 기능인들을 배출할 포부도 갖고 있다.

정현봉 (주)유진공영 [전기용접 1위]

정현봉씨는 "지난 20년간 지내온 현장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듯한 기분" 이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 했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겨울의 삭풍 속에서 차단막 하나 없이 작업해야 하는 와중에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인 피로까지 겹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하는 정현봉씨는 "이 상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젊은 동료에게도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며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또한 "안전시공이야말로 우리 설비인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시공이 정현봉씨의 시공철학임을 밝혔다.

정현봉씨는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일하는데 나이가 결코 걸림돌이 아님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오늘도 기술연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학진 (주)금화PSC [전기용접 3위]

"지금까지 받은 상이라곤 초등학교 때 받은 진보상이 전부였는데 이런 큰 상을 받아 얼떨떨하다"며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김학진씨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김학진씨는 '안전시공'과 '성실시공'을 용접시공에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꼽았다. "이 두 가지는 용접시공 뿐 아니라 모든 설비 시공시 설비인들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 친구는 열심히 하는 친구야"라는 말을 가장

업계소식

듣고 싶다는 김학진씨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할 때 최고의 용접이 이루어진다"며 최고의 용접사가 되는 것이 '최대의 꿈'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주)명도정공 [전기용접 3위]

"이렇게 좋은 대회를 열어준 건설단체연합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에 감사드린다."며 말문을 연 양한주씨는 "그동안 실무적인 일만 접하여 자격기능에 대해 잊고 살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고마울 따름"이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 했다.

양한주씨는 이어서 "협회에서 사전에 참가할 선수들을 소집하여 각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더 나은 대회운영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다른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양한주씨 역시 "철저한 안전시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 안전이야말로 가장 '기본'임을 강조했다. "정확한 샵드로잉으로 도면단계에서 최대한 완성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교육 후에 샘플시공을 하여 문제 발생시 보완 후 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에서 양한주씨가 기본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후배 양성이 나의 과제"라는 양한주씨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오늘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병식 (주)유일기업 [건축배관 3위]

"수상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기쁩니다." 라며 수상소감을 밝힌 박병식씨는 "이 상을 계기로 건설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 많은 건설인들이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여 각자의 기량을 뽐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희망했다.

박병식씨는 "도면의 정확한 이해와 자재 및 부속의 특성을 잘 파악해 시공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회사를 창업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건물들을 세우는 것"이 포부라고 밝힌 박병식씨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 오늘도 정진하고 있다.

업계소식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 개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최한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가 지난 6월 23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촉진대회에서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치사를 통해 "가스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매년 가스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의 확보 없이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전의식의 성숙과 발전을 당부했다.

박달영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스역사는 한동안 성장 일변도의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그늘에 가려 멀리는 대연각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아현동 및 대구지하철 폭발사고에 이르기까지 대형사고로 얼룩진 영욕의 세월을 겪기도 했다"면서 "너무나 큰 댓가를 치르고 얻은 값진 교훈이기에 이들 사고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가스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한편으론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 가스안전공사도 가스안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기대에 부응코자 그 동안 축적해 온 기술적 노하우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보다 강화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대책을 수립 ·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995년 531건에 달하던

업계소식

가스사고는 지난 2005년 109건으로 80%나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의 건설이 그리 요원한 일이 아니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시장 개방화에 따른 가스산업의 국제화는 가스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또한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도시가스 배관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 · 시행중인 원콜시스템과 새로운 가스산업 환경 및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가스기술기준 코드화 사업 등으로 국제수준의 선진화된 가스안전관리체계의 정착과 더불어 공공의 안전확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최고상인 동탑산업훈장과 철탑산업훈장 각 1개와 2개의 산업포장, 2개의 대통령표창, 5개의 국무총리표창, 45개의 산업자원부장관표창, 10개의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표창, 45개의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로는 강매선 (주)신광엔지니어링 대표(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위원회 간사)와 차동영 (주)경보엔지니어링 대표(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4명의 회원사가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가스안전촉진대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스사고 또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가스안전의식 확산과 가스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가스안전 유공자에 대한포상을 통해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가스안전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 보급을 통해 가스안전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 처음 시작됐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수상 내역

부문	성명	회사명	직위	비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강매선	(주)신광엔지니어링	대표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위원회 간사
	차동영	(주)경보엔지니어링	대표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위원회 간사
	김영운	(주)삼양이앤텍	대표	
	오경희	(주)보경엔지니어링	대표	
		이인E&C(주)		단체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표창	박용식	(주)가스엔텍	대표	
	박종원	아전이엔씨(주)	상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표창	조철희	(주)신안건기	대표	

업계소식

영광의 설비건설인들 - 수상자 프로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주)신광엔지니어링 강매선 대표

강매선 (주)신광엔지니어링 대표는 가스 시공업 분야 ISO 인증을 획득, 고객 만족을 도모하는 기업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시공표준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이다.

강매선 대표는 24년간 가스업계에 종사한 자로서 대한설비건설협회와 전국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간사를 역임, 건설업계 시공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부실시공을 근절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기술검토작성요령 특별교육과 가스시공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아파트 가스사용시설 무료점검, 용접사 및 융착원 교육으로 품질향상 도모, 에너지의 효율적인 등으로 15년간 무재해 기록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주)경보엔지니어링 차동영 대표

(주)경보엔지니어링의 차동영 대표는 지난 85년 경보전자산업을 설립, 가수누출경보차단장치를 생산 및 판매해 오다 지난 98년 경보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다.

지난 21년간 가스관련 설비만을 고집해 온 차동영 대표는 남흥건설을 비롯해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에 협력업체로 등록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아 한진중공업 다대포제작소, 울산 한진중공업, 부경대학교, 해양경찰정비창 등 다년간 양질의 시공을 수행했다.

차동영 대표는 2003년 11월부터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시 가스시공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시공업계의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및 도시가스사에 건의 반영되도록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간사로 선임되어 업계 발전을 위한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삼양이앤텍 김영운 대표

특정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주)삼양이앤텍은 그동안 수입하던 초저온 기화기를 국내에서 자체 제작, 보급 등 산업용 가스의 안정적인 사용에 기여했다.

업계소식

기화기 전문 제조업체로 인정받은 (주)삼양이앤텍은 한국산업가스와 프렉스에어코리아에 기화기 납품업체로 선정돼 있다. 지난 2003년부터는 CNG충전소 사업에 진출해 20여 건의 충전소 시공 등 기술력을 축적했다.

또한 CNG충전소 플랜트를 위한 기술습득을 위해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 견문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주)보경엔지니어링 오경희 대표

보경엔지니어링은 설립 후 최근까지 가정용 가스보일러 청소 및 가스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가스보일러 무료점검 실시(점검실적 : 270대), 보일러 청소요령 소비자대상 교육 실시로 가스사고예방과 에너지절약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애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난방시설에 대한 하자보증 및 민원상담실 운영과 보일러 설치 · 시공에 대한 하자보증이행증서 및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증서 교부, 민원상담실 운영, 보일러 설치, 관리 및 사용요령 등 민원 불편사항 신속처리, 보일러 제조사 A/S센터와 연계 신속한 민원상담 처리로 가스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왔다.

이인E&C(주)[단체 표창]

LNG주배관로 시공업체인 이인이앤씨(주)(대표 오기남)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5년 동안 해양도시가스 및 전남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관로공사(310여건)를 안전하게 시공했다.

이인이앤씨는 창사 이래 가스관련 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사고가 전혀 없을 정도로 '안전 우선의 최고 기술' 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품질 및 환경경영인증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인이앤씨가 무재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스안전사고 예방교육, 시설공사 완료 후 사후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해왔음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매월 1회 가스안전 길거리 홍보,

업계소식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소규모 가스누설 무료점검 등 다양한 가스안전문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이앤씨는 나이지리아에 현지법인인 'NAKO'를 설립, 천연가스배관시공 및 건축사업을 통해 국익에도 일조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표창

박용식 (주)가스엔텍 대표

박용식 가스엔텍 대표는 가스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을 겸비해 정확하고 안전한 책임시공으로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가스시설 시공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박용식 대표는 (주)원일봉합설비와 (주)진용엔지니어링에서 괴산 오성세라믹 지상형 LPG저장시설 설치공사와 저심도 배관을 탐지, 매설된 배관에 보호판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통해 큰 경험을 쌓았다. 2003년 (주)가스엔텍을 설립, 서해도시가스 및 삼천리 공급권의 관로공사 수주 및 준공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 가스시공분야 현대화에 대한 노력과 고객만족 경영 및 시공품질 향상에 정진하고 있다.

아전이엔씨(주) 박종원 상무

가스설비시공 전문업체인 아전이엔씨(주) 가스사업부 총괄부서장인 박종원 상무는 LP가스 및 도시가스의 신규설치와 수용자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가스안전공사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다.

또한 20여년간 쌓아온 가스시공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가스관련 기능사 · 기사 자격증을 4개나 가지고 있는 베테랑.

LP가스 집단공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LNG로의 전환사업을 추진, 도시가스의 안정공급 뿐 아니라 자연환경 오염방지에도 기여했다.

이밖에 아파트 및 복합건물 신축시 도시가스 설치공사와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유도, 가스안전의식에 따른 품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일궈냈다.

업계소식

2006 중소기업 정보화 산·학연계교육 실시

중소기업청이 후원하고 경원전문대학이 주최한 산학연계 정보화 교육이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경원전문대학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경기도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원전문대학 건축설비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보화 교육은 협회 소속 41개 업체 63명이 신청하여 37개 업체 40명의 임직원들이 참가했다. 이번 교육은 경원전문대학 건축설비과 서광수 교수가 (주)디씨에스(대표 이진천)의 협조를 받아 건축기계설비 Auto CAD에 대한 교육으로 △기계설비 CAD 실무 △기계설비 CAD 응용 △기계설비 CAD 3차원 실무응용 등에 대해 집중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협회 임직원들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3시간씩 총 30시간 동안 수업을 받아 CAD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경원대학교는 지난 7월 14일 열린 수료식에서 (주)유림엔지니어링 이준원 대표를 비롯한 35명에게 교육수료증을 수여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경원전문대학은 지난 1997년부터 산학협동 협정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기술혁신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설비산업 기술력 발전과 산학공동연구 등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꾀하고 있으며, 경기도회는 지난 해부터 참여하고 있다.